

취미생활 대중화 따라 '레저문학' 붐

바둑 낚시 등산 소재로 한 에세이와 소설집

일반적으로 취미생활에 흠뻑 빠진 사람을 '꾼'이라 한다. '꾼'들의 생활은 가정에서 주부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예를들어 일요일이면 배낭을 메고 훌쩍 산으로 떠나는 남편과, 토요일 오후만 됐다 하면 몰래 낚시대 숨겨서 강이나 바다, 호수를 찾는 낚시꾼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바둑판 앞에서 진을 치고 집쌍기와 무너뜨리기를 일삼는 반상의 싸움꾼들. 이들 모두가 주부들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취미생활은 즐기는 방법이나 배당되는 시간에 따라 그도가 지나치면 간혹 병이 되기도 한다. 스스로의 '끼'를 어찌지 못하고 '끼'에 빠져서 헤어날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런 양상을 그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대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법하다.

바둑 못두는 이도 즐겨 읽는 바둑책

'꾼'들의 이러한 전문화와 취미생활의 대중화는 출판업계에서도 별종의 책을 만들어 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둑, 등산, 낚시에 관한 에세이, 소설 등이다. 그중 바둑에 관한 에세이, 소설은 이미 700만 바둑 애호가들에게 다가가 있을 뿐 아니라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까지 잡힐 정도다. 이러한 성격의 에세이집 「청석기담」(이승우 지음, 우아당) 「바둑이야기」(이광구 지음, 범조사) 「철학으로 본 바둑에세이」(남상일 지음, 다솔) 「격언 모르고 바둑두지 마라」(변태관 지음, 전문문화사) 등이 있고 소설로는 「입단연가」(홍성화 지음, 논장) 「빈삼각씨와 공배양」(송영 외 지음, 우리문화사) 「명인」(가와바타 야스나리 지음, 민병산 옮김, 출판사) 「도기」(에사키 세이치 지음, 원종성 옮김, 민맥) 등이 있다.

이승우씨가 펴낸 「청석기담」은 각국의 역사서를 통해 바둑의 기원을 찾고 있으며 고전에 실린 바둑의 고수를 소개하고 있다. 또 '기반의 선을 켜라 하고, 선과 선 사이를 뿔라 한다'는 등 바둑판, 바둑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바둑이야기」는 스포츠조선에 '바둑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필자 이광구씨가 바둑에 얽힌 野史를 기록한 책으로 바둑알의 앞뒤 구분법, 역대를 호가하는 바둑판에 얽힌 사연, 그리고 먹줄에서 옷줄에 이르기까지 가로세로 19선을 굶는 재료에 관한 이야기 등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어 있다. 박치문씨의 「요순에서

바둑 낚시 등산 등의

취미생활을 소재로 한 에세이집과

소설집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단순한 안내서이기를 넘어서서

저자 개인의 독특한 취향과 경험을

질게 반영하고 있는 이 책들은,

저자와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독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창호까지)에는 기단을 흥미하고 있는 기사들의 기력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조훈현씨를 '부드러운 바람, 빠른 창'이라 하고, 서봉수씨는 '야생의 표범', 이창호씨를 '기다림과 무심의 극치', 유창혁씨를 '반상의 강태공'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철학의 원리를 이용해 바둑의 세계를 분석하려는 「철학으로 본 바둑에세이」는 철학적인 근거들을 원용해서 바둑의 원리론, 모순론, 법칙론, 인식론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입단연가」는 바둑에 심취해 대학진학마저 포기하고 바둑판에 인생을 내건 한 젊은이의 자전적 성장기를, 「빈삼각씨와 공배양」은 전문인인 15명의 바둑에 관한 콩트와 단편소설을 각각 실고 있다.

낚시에 관한 에세이집으로는 「쏘가리따라 삼천리」(김홍동 지음, 풍경) 「견지낚시」(송우지음, 사초) 「물따라 고기따라」(서기원 지음, 청하)가 있다. 이 에세이들 모두 낚시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끈들이 저술한 것으로 낚시터에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즐거움을 배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특징.

「월간 낚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홍동씨가 쓴 「쏘가리따라 삼천리」에는 「쏘가리가 전국에 걸쳐 그 이름이 달리 불리지 않고, 방언조차 없다」고 지적하면서 「國魚를 정한다면 당연히 쏘가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견지낚시」는 저자 송우씨가 여울견지, 배견지 등을 하며 써 온 에세이집으로 견지낚시의 유래와 유명한 견지낚시터를 소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권의 책이 비전문적인 글쓰기의 결과물이라면, 서기원씨의 「물따라 고기



따라」는 좀더 전문적인 에세이로 자리잡고 있다. 그는 낚시의 정치론, 정서론, 경제론, 윤리론, 체험론 등을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론에서는 낚시와 정치의 유사점을 '기다림'과 '참음'으로 해석하면서 "강태공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연기를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또 경제론에서 낚시라는 행위가 경제원칙에 위배되는 일종의 파격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낚시가 최소 투자의 최대 효용이라는 경제의 최대원칙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재치를 보이고 있다.

단순한 '안내서' 뛰어넘어 개인체험 반영

등산가들의 글이나 등산인들을 소재로 한 에세이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들의 삶 자체가 워낙 생과 사를 넘나드는 관계로 그 글을 읽는 독자 또한 그 드라마에 몰입되는 재미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등산에세이나 소설집으로 각각 10여종의 책이 선보이고 있는데 에세이로 「사람의 산」(박인식 지음, 말과글) 「그산길 그 여로」(손경석 지음, 평화출판사) 「나는 아무래도 산으로 가야겠다」(김장호 지음, 평화) 「우리는 산에 오르고 있는가」(김영도 지음, 수문) 「정상의 순례자들」(신승모 지음, 수문) 「하얀 능선에 서면」(남난희 지음, 수문) 「무등산」(박선희 지음, 규장각) 「지리산」(김명수 지음, 돌베개) 등이 있고 소설로는 「친구의 자일을 꿰어라」(조심 손지음, 정광식 옮김, (주)산악문화) 등과 같이 외국소설을 번역한 것은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작가들에 의해서 씌어진 산악소설집은 대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산」은 조선일보 박인식기자가 등반을 하거나 취재도중 만난 산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산에서 죽어간 산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일기뿐 아니라 그들이 부대끼면서 살아온 생활 주변의 이야기들까지 담고 있어 산사람의 고뇌와 고독을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또 산 사진작가, 산만 화폭에 담은 화가, 조계산의 법정스님, 노고단 산장주인 등 27명의 인물 스케치를 통해 호연지기를 키우는 산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나는 아무래도 산으로 가야겠다」에서 저자 김장호씨는 「안전등반 10칙」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첫째가 「지도로 놓고 계획하라」이고, 그 둘째가 「성급하게 큰 산에 덤벼들지 말라」는 것으로 안전행에 주의해야 할 점들도 함께 기술하고 있어 등산의 좋은 지침서 역할도 해주고 있다. 「우리는 산에 오르고 있는가」와 「정상의 순례자들」에서는 주로 야사·회고담 등을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 백두산, 금강산 등의 등반기는 분단이후 세대들에게 가지 못하는 땅의 그리움을, 그 전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등반 체험기 중 특이한 책으로는 남난희씨의 「하얀 능선에 서면」을 들 수 있는데 이 책은 여성의 몸으로 1984년 정초부터 3월16일까지 76일간 태백산맥을 단독종주하면서 겪은 체험담을 기술하고 있다. 저자 남난희씨는 1986년 여성으로서 최초로 7455m의 강가푸르나봉을 등반한 여류 알파니스트이기도 하다. 또 「무등산」 「지리산」은 각 산의 유래와 전설, 유물, 산에 얽힌 역사 등을 사진과 함께 기술하고 있어 역사기행을 하기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

— 이성수 기자